

두산아트랩 뉴욕 2020

엷질러진 얼룩이 물질을 흡수하기 시작한다 *stain begins to absorb the material spilled on*

천경아 Jesse Chun

신재연 Tiffany Jaeyeon Shin

2020년 1월 16일 ~ 2월 15일

오프닝 리셉션: 2020년 1월 16일 목요일 6시~8시

관람시간: 화 ~ 토 10:00~18:00 / 일, 월 휴관

장소: 두산갤러리 뉴욕, 533 W 25th Street, New York, NY 10001

무료관람 / 문의: +1-212-242-6343(6484)

혀를 깨물기 위해서.

삼킨다. 깊숙이. 더 깊숙이.

삼킨다. 다시 한층 더.

더 이상 신체의 기관이 남지 않을 때까지.

-차학경 Theresa Hak Kyung Cha

두산아트랩은 두산아트센터에서 만 40세 이하 공연, 미술분야의 한국 예술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2010년에 시작한 프로그램으로, 2020년부터는 뉴욕으로 범위를 넓혀, '두산아트랩 뉴욕'을 통해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 신진작가를 발굴, 지원하고자 한다.

1월 16일부터 2월 15일까지 두산갤러리 뉴욕에서 진행되는 《두산아트랩 뉴욕 2020》은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 천경아와 신재연이 참여한다. 천경아 Jesse Chun는 서울, 홍콩, 뉴욕, 그리고 토론토에서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뉴욕을 기반으로 개념적 작업을 선보이며 일상에서 마주하는 언어, 문서, 관료제를 소재로 디아스포라, 번역 불가능한 언어, 그리고 가독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시적으로 풀어낸다. 신재연 Tiffany Jaeyeon Shin은 몸과 발효와 같은 소재로 식민주의의 역사를 탐구한다. 특히, 신재연은 도자기의 표면을 둘러싼 미세한 구멍을 포착하고 발효와 같이 끊임없는 생체 활동의 움직임에 집중하는데, 작가는 이런 소재들이 식민주의의 역사와 닮아 있다고 본다. 신재연의 작품은 음식물에서부터 나는 냄새, 몸의 소화 과정, 그리고 미생물이 발효되는 과정을 역사의 구조와 긴밀히 연결시킨다.

이번 전시에서 두 작가는 '두산아트랩'에서 '랩'을 마치 실험실처럼 전시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로 사용한다. 실험실(Lab)로 비유된 두 공간에서는 발화(발음, 침묵, 생략)와 몸(섭취, 오염, 방지)에 대해 질문하며, 언어와 소화의 구조가 어떻게 긴밀히 엮여 있는지를 탐구한다.

첫 번째 랩(Lab)에서는 천경아의 조각과 사운드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천경아의 작품들은 언어와 읽기의 관료적, 제도적 체제를 연구한다. 천경아는 다양하게 마주하는 일상적 사물들을 읽을 수 있는 소재로 만들어내, 권력, 통제, 의미들이 가진 기존 장치들을 능동적으로 오독하고 다시 쓴다. 예를 들어, 세계 “공용어”라 불리는 영어의 발음 강습 오디오, 관료적인 문서와 증명서 원본을 인증하는 워터마크, 손 글씨를 이루는 흑연의 물성이 그 예시다. 시각적, 청각적, 그리고 기호학적 관념들을 통해, 천경아는 읽기, 내면성, 그리고 불가능한 번역의 영역을 모색한다.

두 번째 랩(Lab)에서는 신재연의 유리로 만든 옹기를 선보인다. 신재연은 기원전 5000 년부터 이어온 한국 전통 도기인 옹기를 불투명한 유리 표면으로 변형한다. 옹기는 아주 조그만 공기구멍이 나있는 표면을 통해 숨을 쉰다. 이러한 표면은 음식을 발효시키고 최적의 통풍 상태를 만드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유기적이고 공기가 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옹기는 살균된 표면과 향을 가진 유리로 변한다. 이러한 유리는 한국 전쟁 이후 서구 근대화를 상징한다. 더불어, 옹기에서부터 공중으로 퍼지는 썩 향은 오염과 방지의 영토를 상징한다.

천경아 Jesse Chun (b. 1984)는 뉴욕을 기반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언어를 소재로 그 배후의 정치적, 사회적 의미를 탐구한다. 최근 전시 및 예정 전시들은 Sculpture Center (2020, 퀸즈, 뉴욕 주, 미국); Queens Museum (2018, 퀸즈, 뉴욕 주, 미국); The Drawing Center (2019, 뉴욕, 뉴욕 주, 미국)가 있다. 천경아는 Triple Canopy (2018, 뉴욕, 뉴욕 주, 미국); The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Fellowship at ISCP (2019, 브루클린, 뉴욕 주, 미국); BRIC Media Arts Fellowship (2017, 뉴욕, 뉴욕 주, 미국); Bronx Museum AIM (2017, 브롱즈, 뉴욕 주, 미국)에서 수상했다. Brooklyn Bridge Park (2017, 브루클린, 뉴욕 주, 미국)에서 공공미술 커미션 작품을 했다. 천경아의 작품은 School of the Art Institute of Chicago, Artist Book Collection (시카고, 일리노이 주, 미국); Cleveland Clinic Art Collection (클리블랜드, 오하이오 주, 미국); Smithsonian Institution, Archive of American Art (워싱턴 DC, 워싱턴 주, 미국); Asia Art Archive in America (브루클린, 뉴욕 주, 미국)등에 소장되어 있다. 또한 Artforum, Brooklyn Rail, Asia Literary Review, Art21, Wall Street Journal, ArtAsiaPacific, 그리고 BOMB 에서 소개되었다.

신재연 Tiffany Jaeyeon Shin (b. 1993)은 뉴욕을 기반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몸과 발효를 소재로 식민주의의 역사를 탐구한다. 최근 전시 및 예정 전시들은 제주 비엔날레 (2020, 제주도, 한국); Lewis Center for the Arts (2019, 프린스턴, 뉴저지 주, 미국); Cuchifritos Gallery (2019, 뉴욕, 뉴욕 주, 미국); Cody Dock (2018, 런던, 영국); Knockdown Center (2018, 퀸즈, 뉴욕 주, 미국); ACInstitute (2017, 뉴욕, 뉴욕 주, 미국); Abrons Arts Center (2017, 뉴욕, 뉴욕 주, 미국); Tiger Strikes Asteroid (2019, 뉴욕, 뉴욕 주, 미국)가 있다. 신재연은 UrbanGlass에 2019 Visiting Artist Fellow로 있었으며, Recess Session에서 2020 레지던시 작가로 선정되었다. 또한 Artforum, Brooklyn Rail, BOMB, ArtAsiaPacific, AQNB, 그리고 GARAGE에서 소개되었다.



NEW YORK
533 West 25th Street,
New York, NY 10001
T. 1-212-242-6343(6484)

SEOUL
서울시 종로구 종로 33길 15
두산아트센터 1층 110-739
T. 02-708-5050

RESIDENCY NY
548 West 28th Street, #231
New York, NY 10001
www.doosangallery.com

두산은 젊은 예술가들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하고 지원합니다